도인은 범상한 말을 하지 않고 범상한 행을 할 뿐이다.



오늘도 불자들은 소문만 무성한 인기몰이에 휩쓸려 TV나 언론매체에서 알려진 그들, 앵무새들의 말 잔치에 무슨 법문을 어떻게 하나?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다. 어느 절 ○○스님이, ○○법사가 하면서 말 잔치에 놀아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말 잘하는 이는 아이, 어른할 것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말문 터서 입으로 성불하라고 경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입은 굳게 다물고, 실천(행)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오래전에 한평생 주지 한번 안 하시고, 어떤 명예나 권력도 마다하며, 오직 옷 한 벌로 평생 우리들 곁에 있다가 가신 ○○큰스님의 법문이 지금의 전 불교 교단에 꼭 필요한 충고가 아닌가 싶어 이 지면을 빌어 알리고자 한다.

큰 스님께서 일본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일본의 서예가 중에서도 제일인자라 인정받는 서예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서예가의 시연을 보고자 대 광장에 몰려들었다.

붓을 들기 전 이미 행사장 가운데에는 화선지 두 장이 놓여있었고 행사를 진행하기 전 그를 소개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가 있자 그에 대한 답례로 간단한 인사말과 짧은 연설을 하자 그 큰 광장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가 화선지 앞으로 나아가 붓을 들고는 그의 필법으로 그려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 썼던 글이 콩 두(豆)자를 썼고, 그것을 행사 진행자가 다시 한번 들고 소개하자 그 분위기는 더욱 축제 분위기였다고 한다. 역시 최고의 서예가답다고 하면서 환호 속에 젖어 있을 때 무대 한쪽에서 어느 초라한 농부가 당나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장면을 어느 누구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농부가 화선지 가까이 와서 콩 한 알을 화선지 가운데 놓자마자 그 당나귀는 그 유명한 서예가의 혼이 담긴 콩 두 자가 그려진 그 화선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콩을 먹어버리고는 유유히 뒤도 안돌아보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법문을 들으면서 농선쌍수(農禪雙修)를 주창하신 4조 도신 선사와 백장해회 선사가 얼마나 위대한 대 선지식이고, 대선사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불교는 말과 글이 아닌 실천을 통한 행이란 것을...**

오늘날 앉아서 입으로 도통했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 한심스럽다. 옛말에 어린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어른들은 행을 보고 배운다 했는데 오늘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말만 하지 행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본 절에 오시는 분이 "스님, TV나 유튜브에 조현병 환자에 관해 질문 답변하는 거 보셨느냐?"고 하길래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어쨌든 꼭 보세요." 하면서 인터넷을 틀어 주는 것이다. 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영방송에서, 하나는 ○○명상 대전이라는 큰 프로그램이었다. 지금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질문자가 조현병 환자를 만났거나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하니 "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답변과 또 한쪽은 정념을 갖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참회와 병원 약물치료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법화경과 약사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쇄수게에 등장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은 **부처님은 위대한 의사**라 했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하는 소리란... 할 말이 없다. 그것도 언론매체 앞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 환우들이 자기의 본성을 잃고 내가 아닌 타의 절대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인양 움직이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대개 자살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지극히 정상인한테 얘기할 수 있는 참회가 어떻고.... 팔정도 중에 정념이 어떻고.... 이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자가 할 소리인가? **의사의 본분은 공부한 대로 실습하고 실행하며 현장 상황을 잘 살펴서 명석한 판단력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술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한 다음 세상에 내보낼 때 시술한 의사로써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조목조목 일러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는 훤히 그를 들여다보고 있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시술 능력이 없으면 그는 의사가 아니다.**

또 요즈음 절집에 고령화된 이들이 들락거리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눈멀고 귀먹었다 해서 뭐 ○○대전 같은 것을 열어놓고,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찰나에 이동하고, 가운데 벽이 있건 없건 찰나에 갈 수 있다고 또, ○○ 단체에서는 공중부양을 한다는데...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십여 년 전에 외국 기자가 인도에서 공중부양을 한다는 기인이 있다는 소문에 실제로 인도에 가서 취재한 것과 일본 지하철 독가스 사건의 주인공인 옴진리교 교주인 그가 공중부양을 한다고 선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던가? (지금도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잘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비논리적인 것을 앞세워 세상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것인지...

● 조현병 (신병) 사례

몇 년 전 어느 스님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편지 두 통을 받았다. 너무 아파 좀 살려달라는 것이다. 살려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편지이다.

그 편지 속에는 구구절절 지난 세월의 고통이 그대로 적혀있었고, 지금도 그 편지는 가지고 있다.

스님은 일찍이 출가하여 유명한 강원과 4년제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선방도 다녔고, 때가 되어 불법을 홍포하기 위해 문화재가 있는 제법 큰 절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과 상담한 내용은 이렇다. 학부 시절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더 고통이 가해지자 큰 병원을 찾았으나 병명은 나오지 않고 진통제만 주더라는 것이다.

본인 안면을 이용해 크고 작은 절에 고통을 호소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고통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교인을 떠나 TV나 언론매체에 이미 알려져 최고라 자칭하는 기수련 명상 등등... 을 찾았으나 시간과 돈만 탕진하고 결국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빨리 죽는 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결국 마음을 먹었으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더 고통만 수반되더라는 것이다.

신도들이 알까 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던 사이 속가의 어머니도 신병이었는데 결국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상담하는 시기에 하나뿐인 여동생도 신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상담 시 어느 절에서, 어느 수련원에서, 어느 원장이, 어느 스님이, 어느 지도 법사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상세하게 묻는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을 지킬만한 의지표명이 없을 시 정법 인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외면한다.

그 약속이란 아주 간단한데 여태껏 신문에 글 썼듯이 **비불교적인 행위 (사주, 철학, 부적, 삼재풀이, 삼재기도,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인등, 수능 합격기도, 운맞이 기도, 재수대통 기도, 승진 기도, 만년 위패, 평생 위패, 중 생일, 고급 승용차, 고급 실크가사, 장삼, 산신, 용왕, 바위, 돌, 나무, 술, 담배 등등...)를 안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강원 졸업하고 4년제 정규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했는데 그 어디에도 비불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곳이 있더냐고 묻고는 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 보고 당부하는 장면은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공부했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행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비단 그 스님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여러 번 어필했지만, 고통을 호소하며 여기를 찾아오는 스님들 모두에게 항상 똑같은 말을 통해서 지금부터 바르게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절대 **바르게 하면 팔부신장이 불, 보살님의 명을 받아 마구니 병 (신병, 조현병)이 얼씬도 못 하게끔 지켜준다고 했다.** 그래서 확약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때 기도를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약속이란 바로 돌아가는 즉시 법당에 인등부터 끄고, 부적, 삼재, 사주, 입시기도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 현수막을 절 입구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라. [사주, 부적,삼재 등등... 일체 사절합니다.]라고. 그러면 이 소승이 조만간에 시간 나는 대로 스님 절에 방문해서 그것이 걸려있으면 스님 처소에 가서 부적, 사주 책자 등... 비불교적인 것들을 일체 압수하고, 기도후 그때 날짜를 잡아주고 온다. 이때는 항상 일 부 신도님과 동행한다.

만약 현수막이 절 입구에 보이지 않을 시는 모르게 신도님만 안에 들여보내서 법당 내 인등부터 확인하고 다음에 큰 등, 작은 등이 걸려 있는지 보라하고, 인등, 큰 등, 작은 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스님을 만나서 자녀 문제 상담 차 온 것처럼 하여 물을 때 생년월일, 시 등을 물어보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바로 나오라고 한다. 많은 스님이 아픔을 호소하며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해 보면 90%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스님이 확약하고 간 뒤에 그 스님의 눈을 보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2주를 넘기기 힘 들 것 같아 주중에 절을 찾으니 절 입구에 큼지막하게 나와 약속한 것 (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을 보란 듯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법당 출입문 벽에도 붙여놓고...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스님 처소에 가서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하며 대단한 결심을 한 것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스님이 인등 얘기를 꺼내는데... "인등비를 다달이 낸 이가 있고, 대부분 몇 달 내지는 년 회비를 낸 이도 있으니 인등만은 어찌해야 하느냐고?" 하길래 "그럼 낸 날 까지만 인등을 켜고 그 이후 것은 받지 마세요." 하니 "예"하며 환하게 웃는 것이다. 바로 즉석에서 기도하고는 "이 기도로 2~3일은 아프지 않을 테니 바로 와서 기도 받으시오." 하고 일러주고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 스님은 이틀 후에 와서 새벽에 신도님들 보는 데서 기도 받고 보냈다. 그런데 간줄 알았는데 저녁 나절에 찾아와 하는 말이 "낼 아침 한 번만 더 기도 받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냥 가도 괜찮다고 해 도 계속 한 번 더 기도 받고 싶다고 간청을 했다. "왜 가지 않고 왔냐?"고 하니 지리산에 있는 강원 도반 스님도 만날 겸... 여기 본 소승이 상담 중 나도 때가 되면 토굴로 돌아갈 거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도반도 만나고 도반이 소개하는 토굴을 가본 후 주소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것을 답례로 스님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돈은 수행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돈이니 세상을 향해 쓰라고 일러주며 보내면서 다시 재현될지 모르니 당분간은 1달에 1번씩은 꼭 와서 내게 눈을 보여라 하고 돌려보냈는데 6개월 후에 안부의 전화가 왔고, 1년 후에 다시 안부의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스님 나들이 길에 한 번만 들려 달라고. 맛있는 공양 대접하겠다고... 지금 각 사찰에서는 본 사찰이 영험한 도량이라고 선전하며 서로 경쟁 적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합격기도, 수능 고득점 기도라 해서 승, 속이 부처님 전에 우리 아들, 딸 합격시켜 달라고 합격기도 발원문에 사진까지 붙여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고 관세음보살을 허공에다 부르고 있다.

이것이 **최상승법을 자랑하는 불교인가?** 절에 크고, 작은 스님네와 초청받은 법사가 하는 말은 한결같이 입으로는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향해 베푸는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수없이 얘기하면서 실제는 타인을 위한 행은 자비와 거리가 먼 오직 내 아들, 딸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장사꾼들의 소견과 다를 게 있겠는가? 소납은 승진 기도, 합격기도 등등... 같은 잡상인 짓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바람과 원이 있다면 버얼건 대낮에 절에 가지 말고 필히 장애인이 있는 곳이나, 노인 요양원 등등...을 찾아 그들을 위해 봉사를 할 때 땀도 나고, 몸이 피곤해지며, 힘이 들 것이다. 그때 지금하고 있는 자비의 행에 힘을 얻기 위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쉼 없이 하라고 일러준다. 이럴 때 바른 행을 근본으로 하는 불자면 그 명호 한 번에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이고, 내 목적을 성취키 위해 억지로 하는 이는 그러한 체험을 못 하고 피곤함만이 더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명호를 부르더라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입각한 자비실천을 할 때 그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낼 것이고, 비록 명문대학을 못 가고 지방대를 갈지라도 이 사회의 어느 조직에서나 잘 적응하며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꼭 필요로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종교에 귀의하는 목적은 부처님처럼 성품을 닦아서 인격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에 글 나가고 많은 이들이 전화가 온다. 전화기를 들면 XX 욕과 또 걱정하면서도 환희심이 난다는 이등등... 그중에서 스님 그렇게 해서 절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이도 있고, 찾아오는 이도 더러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절, 사찰, 암자는 수행자가 살아가는 처소이자 집이다. 여기는 장사꾼들이 살아가는 영업소나 기업이 아니다. 이미 공양주 월급, 부전 월급 등등... 운운하는 곳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석가세존께서는 팔십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지의 모습으로 직접 탁발을 다니셨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양주라니... 임제록에서 임제선사가 말씀했듯이 가사, 장삼을 입었다고 출가자가 아니다. 본체가 유혹을 전제로 하는 여우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그의 본체는 여우인지, 양인지.... 운운하는 대목이 있다. 본 수행자가 있는 처소는 지금까지 공양주나 부전을 두지 않으며, 모든 먹거리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필요한 만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나누고 있고, 가재도구를 비롯해 필요한 생활용품은 길거리에서 주워다 쓰고 있고, 깁고 기워서 재활용 하고 있고, 금전적인 소모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제일 큰 목돈은 안거 때 100일 동안 쓰는 전기료와 신문에 부처님 바른 가르침인 정법을 알리기 위해 쓰는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 금강경 말씀처럼 불제자가 불법을 쉼 없이 알려야 하는데 유독 알릴 수 있는 이 비용이 본 소승한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얼마 전 TV에 방영된 출가자들이 고급 요정, 술집, 카지노, 로비금 3억 등등...을 보면 가사, 장삼을 입은 이가 왜 저 모양인지?... 그들이 쓰는 그러한 돈의 일부만 내게 주어진다면 각 신문마다 부처님 바른 법을 알리는 데 주저치 않고 쓸 수 있을텐데... **분명한 것은 절은 수행자가 생활하는 처소이기에 여기서는 말이 필요없는 그 수행자가 비록 거지 형국이나, 당당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곳이다. 말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간혹 전화하는 이나 편지하시는 이나 내왕하시는 분들이 일부 무슨 비법이 있냐면서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왕왕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바르게 실천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고개만 갸우뚱한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종교는 도덕을 근본으로 한다.]**고... 꼭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유혹을 뿌리치고 바르게 하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을 불보살님과 팔부신장의 가피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납자는 확신한다. 신병(조현병), 암1,2기 말고 말기 암 환자 및 시한부 환자, 희귀병 환자 등...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행위는 비불교적인 행위만 하는 그 절 아들(승)들이 대 스승이시고, 대 어버이이신 아버지(부처님)한테 밤낮으로 간청한 들 그 어버이가 그 청을 들어주겠는가? 거짓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 바른 정법을 알리기 위해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여기에 직접 사례자를 통해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장소를 제공해 주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1) 010-2526-4365 (김 00)
2) 010-4807-6932 (박 00)
3) 010-9707-4808 (박 00)
4) 010-6786-7495 (윤 00)
5) 010-3143-5302 (선현)
6) 010-9411-5302 (법혜)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